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ategic Planning on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오선경 (Seonkyung Oh)\*\*

박성재 (Sungjae Park)\*\*\*

정연경 (Yeon Kyoung Chung)\*\*\*\*

### 초 록

국가장서는 한 국가의 지적·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총체적 자원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이해를 돕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문화자원인 국가장서 개발 전략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지식정보의 포괄적 수집과 영구 보존 및 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장서 관련 주요 문헌 분석, 장서 현황 분석, 심층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가장서개발 로드맵으로 '국가지식자원의 체계적 수집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수집과 확충,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발전적 연대 및 협력의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7개의 핵심과제와 20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National collections refer to the comprehensive body of materials that preserve and document a nation's intellectual and cultural heritage, playing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national identity and historical continuity.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establish a strategic plan for developing national collections, which represent a wealth of knowledge and cultural resources that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history and are accessible to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llection capacities of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which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and permanent preservation and provision. To this end, an analysis of major literature on national collections,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existing collections,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 roadmap for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anchored in the vision of 'creating future value through the systematic acquisition of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structured around three major policy goals—strategic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collections, sustainab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nhanc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alongside seven core tasks and twenty implementation strategies.

키워드: 국가장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전략계획, 정책 로드맵

National collect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ic plan, policy roadmap

\*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2024).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oskpro@joongbu.ac.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spark@hansung.ac.kr) (공동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5년 5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2025년 5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2025년 6월 11일

■ 정보관리학회지, 42(2), 29-56,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2.029>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국가 지식정보의 포괄적 수집, 영구 보존 및 제공, 후대 전승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적·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지식 정보 수준 향상과 국내외 지식정보의 안전한 보존 및 신속한 제공을 통해 문화선진국과 지식강국 실현에 기여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러한 책무와 사명의 기반에는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개발·수집·제공·보존관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가장서는 한 국가의 지적·문화적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자료의 총체를 의미하며, 특정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종류의 출판물과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그 국가의 지적·문화적·역사적 기록을 망라하는 포괄적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국가장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수집·보존한 장서로서,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성, 누적성, 체계성, 가치성을 담보하는 합집합적 개념과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대한민국의 출판물을 인쇄 및 디지털 형태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다양한 사회, 문화 및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국인에 대한 학습, 연구 및 이

해를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지식문화자원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장서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장혜란 외(2009)의 '국가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윤희윤, 장덕현(2010)의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2018; 2021; 2023a)은 '장서개발지침' 초판(2018), 개정판(2021), 제3판(2023a)을 통해 국가장서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집방법, 국내자료, 외국자료, 자료보존·관리 및 제작·폐기, 자료유형별·주제별 수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제3판(2023a)을 준수하여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 디지털정보기획과, 고문헌과 총 4개 부서가 매체·유형·시기별로 장서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장서 수집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연구(이영학 외, 2022)',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유춘동 외, 2022)',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노영희 외, 2023)',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김영식 외, 2023)'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장서를 다양한 요소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가장서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은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장서 전략을 수립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

표도서관으로서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도서관의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2025-2029)을 제안하였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개발 전략 수립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장서개발지침의 개발이나 개정을 넘어 좀 더 큰 범주에서 국가장서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서 관련 주요 문헌을 조사·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분석, 국가장서 수집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국가장서 확충을 위한 전략 방향 및 계획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등에서 국가장서 수집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통계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서수, 자료유형, 수집방법, 주제별 장서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현실적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5년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국가장서 수집 부서 담당자 19명과 심층면담을 통해 국가장서 수집의 한계 및 해결 방안, 대내외적 협력 가능성과 핵심 요소를 파악하였다. 넷째, 문헌정보학, 경제·경영·행정학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장서 수집전략계획(안)의 타당성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국립중앙

## 2. 국가장서에 관한 분석

### 2.1 문헌 분석

#### 2.1.1 법령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 수집은 「도서관법」을 근거로 하며, 이 법은 196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2023.8.8. 시행)은 제20조(업무), 제21조(납본), 제22조(온라인자료의 수집)를 통해 국가장서 수집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에서는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자료제공요청),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6조(온라인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납본과 수집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는 국가장서 수집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와 보완 과제가 있다.

첫째,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는 납본 대상 자료를 총 8개 유형(도서, 연속간행물, 악보·지도, 마이크로자료·전자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 특수자료, 기타 새로운 형태의 자료)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가치가 높은 회색문헌(학위논문, 조사연구보고서, 회의록, 세미나자료 등)이 납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색문헌은 출판정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확인·접근이 어렵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료이므로 납본수집에 주력해야 한다(윤희운 외, 2012, 178-179, 214-216).

둘째,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정의와 수집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된 학위논문 및 정부간행물에 대한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학술적 가치를 감안하여 수집 대상을 박사학위논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에서 한국인이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은 파일형태로 납본·수집하는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윤희윤 외, 2012, 179; 김영식 외, 2023, 156-157).

셋째, 납본자료가 판매용일 경우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납본 보상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납본하거나, 후속 사업을 위한 납본 실적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세금 낭비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손애경 외, 2021, 18-19). 이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법」 제26조 제7호는 광역대표도서관 업무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방법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역자료수집협의회가 발족되었으나, 광역대표도서관이 수집해야 하는 자료 유형 및 방법 등 향토자료 수집에 필요한 세부 지침 및 역할 분담이 여전히 미비하다.

다섯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간의 법적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

관에 납본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를 규정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호(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와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를 규정한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 제3호(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수집에 대해 중복으로 언급하고 기관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수집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총괄 수집·보존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 2.1.2 정책 분석

###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2006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 및 지원계획의 준거가 되는 동시에 모든 부처와 관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수립되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따뜻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2개 핵심과제, 24개 추진과제, 49개의 실행계획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국가장서수집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목표는 ‘국가 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이며, 이와 관련된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은 <표 1>과 같다(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표 1〉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국가장서 수집 관련 내용

정책목표	과제와 계획		
	핵심과제	추진과제	실행계획(사업내용)
3. 국가경쟁력 강화, K-지식자원 보고	3-1. 국가 지식문화유 산의 체계적 축적	3-1-1. 한국자료의 포괄적 수집	① 온·오프라인 자료의 수집 및 외연 확장
			② 특화형 한국자료의 조사·발굴·수집 확대

첫 번째 실행계획으로 제시된 ‘온·오프라인 자료의 수집 및 외연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장서 확충, 법·제도 정비, 기관 간 협력 강화, 연구성과물의 수집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장서의 지속적 확충과 기존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은 총 200만 책 규모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전체 소장자료의 15.3%에 해당한다. 향후 웹툰, 웹소설, 음원, 오디오북 등 신매체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및 학술 목적의 실감형 콘텐츠, 비정형 연구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온자인 자료를 추가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 및 매체의 변화에 따라 납본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판 동향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유형별 온라인 자료의 납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납본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신매체 자료 수집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납본 수집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출판 및 유통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독립·전자출판물의 제작 및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수집 범위를 넓

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자료의 납본 기관으로 지정된 광역대표도서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간행물의 수집률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연구성과물의 수집 확대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sup>1)</sup>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수집체계 강화와 비정형 연구성과 수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실행계획인 ‘특화형 한국자료의 조사·발굴·수집 확대’를 위해서는 고문헌, 한국기록, 구술자료와 같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는 국가장서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의 통합 수집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도서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자료 접근성과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2)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중

1) 2022년 과기부 지정(10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논문·보고서 원문), 한국특허전략개발원(특허),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시설·장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요약정보), 한국화학연구원(화합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자원), 국립농업과학원(신품종),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표준협회(표준)

장기 전략계획인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2024~2028」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식정보 향유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계획의 비전은 ‘지성과 문화로 세계를 잇다’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활용성’, ‘신뢰성’, ‘포용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장서 수집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추진 전략으로는 ‘국가지식자원의 보고로서의 도서관’이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표 2>와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23b).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 수집량의 감소, 신매체의 등장 등 수집환경 변화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전략 2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지식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담당하는 최상위 책임기관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존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전통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

한 다양한 지식정보 자원을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특히 고문헌, 지역 문화유산, 해외 한국 관련 자료, 글로벌 K-콘텐츠와 같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을 적극 확대하여 국가장서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도서관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픈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장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집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지식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의 디지털 보존 전략 수립과 지능형 보존·복원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며, 본관과 분관의 데이터센터 통합 및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등 물리적·전자적 통합 보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보존체계 구축은 국가장서의 지속가능한 보존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전통 매체와 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포괄적 국가장서 보존체계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 수집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한계 및 보

<표 2>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2024~2028」의 국가장서 수집 관련 내용

추진 전략	내용
1. 국민의 지적·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	① 수요 기반 지식정보 제공 ② 국가지식자원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제공과 디지털격차 해소 ③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대표도서관
2. 국가지식자원의 보고로서의 도서관	④ 국가지식자원 수집과 보존의 최상위 책임기관 ⑤ 현재와 미래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지식자원의 보존과 후대 전승 ⑥ 신뢰도 높은 도서관 데이터의 생산과 제공
3. 국내외 도서관계를 선도하는 도서관	⑦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참여와 협력의 리더십 강화 ⑧ 우리나라 도서관계 영향력 강화 ⑨ 도서관 가치 확산과 사서 전문성 강화
4. 유연한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분배	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기적인 조직 운영 ⑪ 영향력 측정을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

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2024~2028」에 포함된 국가장서 수집정책은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대체로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전략의 구체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국내 주요 관련 기관뿐 아니라, 선진국의 국가도서관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이 미비하다.

둘째, 납본수집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유통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공공간행물 납본을 향상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구성과물 수집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달기관, 사료 수집·보존을 위한 실무협의회 등과의 범정부적 협력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납본 모집단의 설정, 납본물 제고 방안,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선정 기준과 유형별 보상금 지급 기준 등 납본보상체계의 제도화와 더불어 공공·민간이 생산한 다양한 기술자료의 발굴 및 수집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쇄본 발행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본 중심의

납본 및 보존체계 전환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연구수준'의 자료 확보 및 제공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서, 학술지, 박사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등은 체계적인 납본 수집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외국 학술자료는 자료유형·언어·주제·국가별로 구분된 수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장서 개발정책은 두 가지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소급자료를 다양한 방식(구입, 수증, 영인복사, 디지털화)으로 지속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납본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 요청, 수증 유치,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통해 적극 수집하는 것이다.

## 2.2 국가장서 현황 분석

### 2.2.1 총장서량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비도서와 온라인자료 현황은 <표 3>과 같다. 장서증감률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온라인 자료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총장서량(2019-2023)

단위: 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서·비도서	12,307,623	12,890,131 (4.73)	13,329,742 (3.41)	13,805,208 (3.57)	14,253,764 (3.25)
온라인자료	18,294,413	16,739,365 (-8.50)	18,174,914 (8.58)	18,589,753 (2.28)	19,595,029 (5.41)
합계	30,602,036	29,629,496 (-3.18)	31,504,656 (6.33)	32,394,961 (2.83)	33,848,793 (4.49)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변화율(%)을 나타냄

수집량이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NARA기록물의 산정 단위를 ‘면’에서 ‘건’으로 변경하여 자료량 수치가 조정된 결과이다.

### 2.2.2 자료유형별 장서 수집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서·비도서 자료의 유형별 수집 현황은 <표 4>와 같다. 일반도서가 전체 수집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공공간행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속간행물은 2020년에 181,028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열람 목적으로만 제공된 미등록 자료 약 11만 책을 일괄 등록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간행물의 수집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학위논문은 2019년 대비 12.55% 감소하였다. 한편 회색문헌은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을 포함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 비율에서도 학위논문(14.9%)과 기타 회색문헌(0.9%) 간 차이가 커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기타 회색문헌은 전체 도서·비도서자료 수집량의 0.68%에 불과하나 매년 꾸준히

일정량이 수집되고 있으며, 비도서는 전체 수집 자료의 약 6.5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는 전자책, 전자저널,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웹사이트, 장애인대체자료, 디지털화자료, 해외기록물, 국외고문헌, 기타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다. 2023년 온라인 자료 수집량은 1,016,815건으로, 2019년 대비 48.48% 감소하였다. 특히 디지털화자료는 2019년 대비 59.3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디지털화사업 예산 축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목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에 디지털화자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신문(기사) 디지털화 예산이 전년 대비 4억원 이상 축소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수집량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저널의 경우 2020년에 전년 대비 170,125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했던 비공개 전자저널이 일괄 소급 납본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전자저널은 매년 약 13만 건씩 꾸준히 수집되고 있다. 이미지자료는 매년 수집량이 큰 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웹사이트의 수집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표 4> 도서·비도서 유형별 수집 현황(2019-2023)

단위: 책,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일반도서	254,240	278,286	247,291	231,911	234,165	1,245,893	(51.22)
연속간행물	71,474	181,028	92,258	83,063	81,270	509,093	(20.93)
공공간행물	39,398	40,770	45,030	49,263	51,135	225,596	( 9.28)
학위논문	59,374	53,151	60,912	50,994	51,921	276,352	(11.36)
회색문헌	3,479	3,173	3,193	3,562	3,201	16,608	( 0.68)
비도서	31,005	32,339	30,272	32,562	32,524	158,702	( 6.52)
합계	458,970	588,747	478,956	451,355	454,216	2,432,244	(100.0)



70.63%까지 감소하였다. 웹사이트 수집의 경우 복잡한 기술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나, 사업 예산이 소액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022년 10만 건에서 2023년 5만 건으로 수집 목표량을 하향 조정한 것이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기록물과 국외고문헌의 수집량이 2021년에 일시적으로 급증한 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의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시민도서관 등 국내기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을 일회성으로 진행하여 1,920건을 수집한 결과이다. 장애인대체자료, 디지털화자료, 해외기록물, 국외고문헌은 분석 기간 동안 수집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5〉 참조).

### 2.2.3 수집방법별 장서수집 현황

국가장서는 납본, 구입, 기증, 자체생산, 국외

자료 교환 및 자체수집의 방법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자료의 매체변환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구축하는 자체생산 방식이 전체의 50.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자체생산을 통한 수집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디지털화 예산이 매년 10억 원 이상 축소되고, 대상 자료의 한 권당 평균 면수가 증가하면서 디지털화 사업 목표량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납본을 통한 수집이 전체 수집장서의 28.72%, 웹 아카이빙과 온라인 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활용한 자체수집이 12.67%, 구입, 기증 및 국외 자료 교환을 통한 수집은 약 8%를 차지하였다. 2019년 대비 2023년까지 수집량이 증가한 수집 방식은 납본(3.9% 증가)이 유일하였으며, 다른 수집방식의 경우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기증을 통한 수집은 2020년 ‘과년도 미소장 기증 자료 정리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

〈표 5〉 온라인자료 유형별 수집 현황(2019-202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단위: 건 변화율(%)
전자책	41,281	77,825	44,764	44,168	58,143	( 40.85)
전자저널	61,006	231,131	136,920	128,399	137,493	(125.38)
공공간행물	36,635	27,162	27,019	25,682	33,765	( -7.83)
학위논문	40,149	35,434	32,883	32,617	34,549	(-13.95)
음성·음향자료	23,981	32,860	29,803	24,719	24,695	( 2.98)
영상자료	6,093	11,236	9,205	9,958	4,246	(-30.31)
이미지자료	0	23,840	19	1,427	26,004	( - )
웹사이트	195,372	133,354	128,438	128,047	57,371	(-70.63)
장애인대체자료	16,030	0	7,068	6,422	9,213	(-42.53)
디지털화자료	1,551,533	940,019	1,049,849	592,449	630,446	(-59.37)
해외기록물	1,172	760	1,456	810	823	(-29.78)
국외고문헌	531	26	1,920	0	67	(-87.38)
기타	-	-	-	-	-	( - )
합계	1,973,783	1,513,647	1,469,344	994,698	1,016,815	(-48.48)

\* ( )안의 수치는 2019년 대비 2023년 장서량 변화율(%)을 나타냄

〈표 6〉 수집방법별 수집 현황(2019-2023)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납본	513,189	669,664	518,405	483,048	533,228	2,717,534	(28.72)
구입	90,439	94,900	83,250	78,117	76,812	423,518	( 4.48)
기증	93,208	102,492	51,798	46,995	33,802	328,295	( 3.47)
자체생산	1,553,484	941,141	1,053,425	593,460	631,536	4,773,046	(50.44)
국외자료교환	5,906	4,840	2,715	3,526	3,841	20,828	( 0.22)
자체수집	238,032	289,357	238,707	240,907	191,812	1,198,815	(12.67)
합계	2,494,258	2,102,394	1,948,300	1,446,053	1,471,031	9,462,036	(100.0)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국외 자료 교환 방식은 전체 수집량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1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6〉 참조).

납본을 통한 장서 수집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0년에 669,664건으로 가장 많은 장서가 수집되었다. 자료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도서·비도서 가운데 일반도서, 학위논문, 회색문헌뿐 아니라 온라인

자료 중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음성·음향 자료의 수집량이 2019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학위논문은 도서·비도서와 온라인 자료 모두에서 수집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온라인 자료 중 음성·음향자료의 수집량 감소는 자료의 등록 및 서비스 방식이 변경되면서 2022년부터 통계 산정 기준을 '건'에서 '종'으로 변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7〉 참조).

구입을 통한 장서수집은 도서·비도서 자료

〈표 7〉 납본을 통한 장서 수집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도서·비도서	일반도서	143,610	147,026	144,762	138,630	143,545	717,573 (37.45)
	연속간행물	67,485	173,729	83,714	74,242	74,359	473,529 (24.71)
	공공간행물	39,398	40,770	45,030	49,263	51,135	225,596 (11.77)
	학위논문	120,879	53,151	60,912	50,994	51,921	337,857 (17.63)
	회색문헌	3,479	3,173	3,193	3,562	3,201	16,608 ( 0.87)
	비도서	27,236	29,106	29,006	29,138	30,597	145,083 ( 7.57)
	소계	402,087	446,955	366,617	345,829	354,758	1,916,246 (70.51)
온라인자료	전자책	17,001	22,598	23,406	19,391	24,856	107,252 (13.38)
	전자저널	11,174	132,308	64,025	59,372	84,502	351,381 (43.85)
	공공간행물	36,635	27,162	27,019	25,682	33,765	150,263 (18.75)
	학위논문	40,149	35,434	32,883	32,617	34,549	175,632 (21.92)
	음성음향	6,143	5,207	4,455	157	798	16,760 ( 2.09)
	소계	111,102	222,709	151,788	137,219	178,470	801,288 (29.49)
합계		513,189	669,664	518,405	483,048	533,228	2,717,534 (100.0)

중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도서가 구입을 통한 전체 수집량의 96.45%를 차지하며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연속간행물은 2.83%, 비도서자료는 전체의 0.72%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도서자료는 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의 구입 실적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수집량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8〉 참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기증을 통

해 수집된 장서 중 온라인자료는 총 196,323건으로 전체 기증 장서의 59.80%를, 도서·비도서 자료는 40.20%를 차지하였다. 특히 온라인자료에서는 전자저널이 7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도서·비도서 자료에서는 비도서의 기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자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연속간행물은 2023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증을 통한 자료 수집량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표 8〉 구입을 통한 장서 수집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도서·비도서	일반도서	88,189	91,062	80,144	75,037	74,042	408,474	(96.45)
	연속간행물	856	2,671	2,978	2,894	2,593	11,992	( 2.83)
	비도서	1,394	1,167	128	186	177	3,052	( 0.72)
합계		90,439	94,900	83,250	78,117	76,812	423,518	(100.0)

〈표 9〉 기증을 통한 장서 수집 현황

단위: 책, 건,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도서·비도서	일반	19,416	38,041	21,118	16,834	14,430	109,839	(83.23)
	연속간행물	1,850	3,420	4,523	4,539	3,174	17,506	(13.26)
	지도	-	-	-	1,319	4	1,323	( 1.00)
	사진	-	-	3	6	6	15	( 0.01)
	음악관련	521	81	8	-	2	612	( 0.46)
	마이크로형태	-	-	1	-	-	1	( 0.00)
	시청각자료	8	174	521	984	989	2,676	( 2.03)
	소계	21,795	41,716	26,174	23,682	18,605	131,972	(40.20)
온라인자료	전자책	3,743	18,837	321	148	7	23,056	(11.74)
	전자저널	49,832	41,939	25,303	23,165	15,189	155,428	(79.17)
	음성음향	17,838	-	-	-	-	17,838	( 9.09)
	영상	-	-	-	-	1	1	( 0.00)
	소계	71,413	60,776	25,624	23,313	15,197	196,323	(59.80)
합계		93,208	102,492	51,798	46,995	33,802	328,295	(100.0)

자체생산은 자료의 매체변환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구축하는 수집방식으로, 주로 고문헌의 영인본 및 디지털화 자료를 수집하는데 활용된다.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자료, 해외기록물, 국외 고문헌 등의 유형이 자체 생산되고 있는데, 디지털화자료는 자체생산 자료의 9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디지털화 자료 수집량은 2019년 대비 61.82%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디지털화 예산이 150억에서 2022년 126억으로 감소했고 제작단가 상승에 따라 수집량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외 고문헌은 2020년과 2022년에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고문헌 수집을 위한 해외 출장이 중단되면서 고문헌 수집 활동이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외 고문헌 수집과 관련하여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민도서관 등 국내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여 수집한 장서량이 반영되어 다른 연도에 비해 국외 고문헌의 수집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국외자료 교환은 해외 국가와의 상호 자료 교환을 통해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마이크로형태자료, 시청각자료 등이 주요 교환 대상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자료를 제외하고 연간 평균적으로 약 1,000~1,500여 건의 자료가 교환을 통해 국가장서로 수집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도서가 전체의 42.8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외 기관들이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자료 교환을 통한 수집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1〉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체수집 장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 유형은 웹사이트로, 전체 자체수집 장서의 53.60%를 차지하였고, 전자저널이 15.69%, 전자책이 11.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웹사이트, 전자저널, 음성·음향자료 및 영상자료 등 대부분의 자료 유형이 수집량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자책의 경우 2023년 수집량이 2019년 대비 62.1% 증가하였으며, 이미지자료 역시 2023년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집하였다(〈표 12〉 참조).

〈표 10〉 자체생산을 통한 장서 확충 현황

단위: 책,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도서·비도서	일반도서	202	276	200	200	200	1,078	(90.97)
	마이크로자료	46	60	-	1	-	107	( 9.03)
	소계	248	336	200	201	200	1,185	( 0.02)
온라인자료	디지털화자료	1,551,533	940,019	1,049,849	592,449	630,446	4,764,296	(99.84)
	해외기록물	1,172	760	1,456	810	823	5,021	( 0.11)
	국외고문헌	531	26	1,920	0	67	2,544	( 0.05)
	소계	1,553,236	940,805	1,053,225	593,259	631,336	4,771,861	(99.98)
합계		1,553,484	941,141	1,053,425	593,460	631,536	4,773,046	(100.0)

〈표 11〉 국외 자료 교환을 통한 장서 확충 현황

단위: 책, 권,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도서·비도서	일반도서	2,823	1,881	1,067	1,210	1,948	8,929 (42.87)
	연속간행물	1,283	1,208	1,043	1,388	1,144	6,066 (29.12)
	마이크로형태	1,800	1,743	605	923	749	5,820 (27.94)
	시청각자료	-	8	-	5	-	13 ( 0.06)
합계	5,906	4,840	2,715	3,526	3,841	20,828	(100.0)

〈표 12〉 자체수집을 통한 장서 확충 현황

단위: 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변화율(%)
온라인자료	전자책	20,537	36,390	21,037	24,629	33,280	135,873 (11.33)
	전자저널	0	56,884	47,592	45,862	37,802	188,140 (15.69)
	음성음향	0	27,653	25,348	24,562	23,897	101,460 ( 8.46)
	영상	6,093	11,236	9,205	9,958	4,245	40,737 ( 3.40)
	이미지	0	23,840	19	1,427	26,004	51,290 ( 4.28)
	웹사이트	195,372	133,354	128,438	128,047	57,371	642,582 (53.60)
	장애인대체	16,030	0	7,068	6,422	9,213	38,733 ( 3.23)
합계	238,032	289,357	238,707	240,907	191,812	1,198,815	(100.0)

### 2.3 주제별 장서 현황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분류체계는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박봉석의 한국십진분류법(KDCP)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동양서는 KDC, 서양서는 DDC, 고서는 KDCP를 적용하되 국내서에 대해서는 DDC를 병기하고 있으며 1945년 이전 자료는 조선총독부분류표를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장서 중 93.57%의 자료가 KDC를 이용해서 분류되고 있다. 국외 도서 869,130권이 DDC를 이용해서 분류되고 있으며, 도서·비도서의 6.10%를 차지하고 있다. KDCP는 1946년부터 1983년까지 일반도서의 분류에 사용되었고 주로 고문헌 자료의 분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KDCP에 의해 분류된 도서는 47,429건으로 전체 도서·비도서의 0.33%에 해당한다.

KDC를 이용해 분류된 자료 중 가장 많은 주제 분야는 사회과학(300)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술과학(500), 문학(800) 순이다. DDC를 적용하여 분류된 자료 중 가장 많은 주제 분야는 기술(600), 사회과학(300), 과학(500) 순으로 나타났다. KDCP를 통해 분류된 자료는 주로 역사·지리(200), 어학·문학(300), 철학·종교(100) 순이었다(〈표 13〉 참조).

### 2.4 장서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가장서의 자료유형별, 수집방법별, 주제별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서·비도서 자료의 수집량은

〈표 13〉 분류표별 · 주제별 장서 현황

단위: 권

구분	KDC	DDC	KDCP
000	559,927(총류)	53,122(컴퓨터과학 · 정보 · 일반저작)	2,924(총류)
100	224,059(철학)	16,043(철학및심리학)	5,263(철학 · 종교)
200	429,040(종교)	22,516(종교)	23,270(역사 · 지리)
300	2,857,940(사회과학)	187,407(사회과학)	9,792(어학 · 문학)
400	382,445(자연과학)	16,075(언어)	884(미술 · 연예)
500	2,067,525(기술과학)	118,739(과학)	1,098(사회 · 교육)
600	1,218,691(예술)	336,962(기술)	1,638(정치 · 법 · 경제)
700	423,544(언어)	45,861(예술및레크레이션)	1,302(의학 · 의학)
800	1,493,365(문학)	38,135(문학)	563(공학 · 공업)
900	547,162(역사)	34,270(역사및지리)	695(산업 · 교통)
합계	10,203,698(93.57%)	869,130(6.10%)	47,429(0.33%)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는 2020년 수집 단위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국가장서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장서 수집은 납본, 구입, 기증, 자체생산, 국외자료 교환 및 자체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집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반도서는 5가지 수집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수집한 반면, 연속간행물과 시청각자료는 4가지 방법을 활용하였고, 한 가지 수집방법만 적용된 자료유형이 전체의 4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서의 수집량 확대를 위해 자료유형별로 다양한 수집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비도서자료의 수집은 전체 장서량의 6.52%로, 지도, 사진, 음악 관련 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및 시청각자료가 주로 납본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비도서자료는 도서자료와 함께 특정 시대의 사회적 · 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심도 있는 연구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수집대상이다. 특히, 장서개발지침(국립중앙도서관, 2023a)에서도 비도서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납본 외에도 구입, 기증, 자체수집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집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출판 및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도서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생산 및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수집 대상을 실물 비도서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형태 자료까지 확장하여 전략적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력 및 예산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장서 수집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외 자료의 교환 및 기증 건수와 양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예산의 변동이었다. 특히, 2022년부터 자체생산 예산이 연간 10억 원 이상 감축되면서 수집량이 급감하였고, 이는 전체 국가장서 수집량의 감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가장서 수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집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장서 분류 체계를 분석한 결과, KDC를 통해 분류된 국내자료에서는 사회과학(300), 기술과학(500), 문학(80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DDC로 분류된 국외자료는 기술(600), 사회과학(300), 과학(500) 분야가 많았고, KDCP를 적용한 고문헌 자료는 역사·지리(200), 어학·문학(300), 철학·종교(100)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서가 주로 사회과학 분야, 국외서는 기술과학 분야, 고문헌은 역사·지리 분야에 수집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3. 장서개발 담당자 심층면담 및 전문가 자문

#### 3.1 담당자 심층면담

국가장서 수집업무 담당자들의 현황과 고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파악하여 전략계획에 반영하고자 담당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24년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 회의실(보존관 1층)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총 19명으로, 장서개발과 소속 납본 담당 6명, 구입 담당 1명, 연속간행물 담당 2명, 온라인자료과 2명, 고문헌과 3명, 디지털정보기획과 5명이었다. 면담지는 공통 질문지와 과별 추가 질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수집업무 현황,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항목은 정책 및 규정, 업무 수행, 조직·인력·예산, 기타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참여자 의견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안되었다. 첫째, 개인출판, 독립출판, 주문형 출판(POD), 디지털 및 데이터화된 자료의 증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서 수집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장서개발지침을 비롯하여 납본, 구입, 기증 및 자료 선정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기준을 수정·보완하거나 신규로 제정해야 한다. 둘째, 장서 수집 전략 수립 및 계획, 관리와 운영, 평가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화 전략과 기획은 장서 수집의 전반적인 방향과 일치되도록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납본 제외자료, 납본 보상금, 자료유형별 납본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비도서자료, 온라인 자료, 외국자료 등 각 자료유형별 수집방법과 수집 대상의 선정 근거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적 및 폐기와 관련된 사항 또한 장서 수집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업무 수행 관련해서는 첫째, 현재 인쇄자료와 온라인 자료 수집이 별도의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집 방식과 업무 절차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와 비도서자료를 동일한 납본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외국자료 구입 시 자료 선정의 방식과 절차를 보다 명

확히 보완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 인식이 낮아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고문헌 기증 및 기탁의 증가로 인해 공간 부족이 심화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섯째, 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원 응대 및 미수집 자료 탐색 등 정성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업무 실적으로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적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치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 민간 및 전문가 단체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조직,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료유형 간, 특히 인쇄자료와 온라인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 응대 및 미납본·미소장 자료 조사 등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을 재평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제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적절한 업무 조정과 함께 충분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은 자료유형별 특성, 출판시장 상황의 변화, 자료가격 인상, 자료의 가치 등에 따라 운영방식과 집행 수준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웹사이트 및 디지털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국립중앙

도서관만의 대표 컬렉션 구축이 필요하며, 주요 고문헌, 한국문학, K-콘텐츠 등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둘째, 장서 수집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시기적절한 기능 개선 절차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서 수집과 관련된 통계 관리를 전면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정보의 생산이 요구된다. 넷째, 온라인·디지털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경영·경제·행정학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DBpi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국가 장서 개발 관련 논문 실적이 높은 교수 3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경영·경제·행정학 분야에서는 조직, 통계학, 정책학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가진 교수 3명을 추천받아 2024년 11월 2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A대학교 연구동 교수회의실에서 대면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3.2.1 문헌정보학 전문가 자문

문헌정보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자문요청 시 국가장서 수집 현황 분석과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를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된 전략계획(안)을 함께 제공하였다. 참여 전문가들은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전략계획(안)의 주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서면의견서는 전략계획(안)의 핵심 항목별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표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항목은 총 10가지(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 디지털자원 확대 및 관리 강화, 국내·외 협력 확대,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중의 적극적 참여와 기부 활성화, 기술 인프라 개선, 예산 확보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 성과평가 및 개선,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후 전문가 3인의 서면의견서를 해당 항목별로 분류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전략계획의 보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자문 결과는 <표 1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를 위해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장서개발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장서개발전략팀’의 구성이 요구되며, 납본 대상 및 보상체계를 세분화한 규정과 지침 마련, 출판·발간기관 및 생산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오픈텍스트 및 독립출판 등 다양한 출판 형태에 대한 포괄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자료 선징, 수요기반 장서예측 모델 개발, 희귀장서 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자원의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웹아카이빙 방식 및 형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구축과 장기 관리 및 보존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디지털자료의 수증시스템

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웹툰, 유튜브, SNS 등 신매체 자료에 대한 전략적 수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접근성을 위한 다국어 인터페이스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등 국내 유관기관 및 출판·유통기관뿐 아니라 해외 도서관,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신규 자료 발굴 및 개발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연구 참여, 해외 인적자원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수립, 조직 정비, 직급 상향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선과 함께 납본제도의 세부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를 전략적 계획에 명확히 반영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또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제공, 디지털화 자료의 우선순위 지정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여섯째,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기증문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문헌 기증을 촉진하기 위한 수탁제도 마련 및 기증자에 대한 보상, 홍보 활동 강화, 우수 사례 발굴 및 감사 행사 개최, 효율적인 기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리·보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국가장서 관리, 보존 및 보안 영역에 있어 기술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예산 확보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후원 프로그램 등 외부 재원 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예산 문제를 전략계획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의 실행과제에서 실행 예산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아홉째, 성과평가 및 개선과 관련하여 성과평가체계 구축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지표를 병행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가 차년도 수집정책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 및 이용자의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글로벌 사례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쇄자료와 온라인자료 수집정책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수집대상의 정확한 생산량 파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4〉 문헌정보학 전문가 의견

추진목표	의견
1. 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추어 장서개발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상세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함</li> <li>• 국가장서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팀 구성이 구체적이며 시의적절한 제안임</li> <li>• 납본제도를 납본을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납본 범위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체계 수립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안임</li> <li>• 회색문헌 등 비전형적 자료의 수집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현황 조사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li> <li>• 자료의 생산 단계에 관여하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자료유형별 수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li> <li>• 오픈텍스트, 독립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자료의 자체수집 및 적극적인 수집활동 강화가 필요함</li> <li>• AI 기술을 이용해 작성된 자료 및 협력작성을 통해 생산된 자료의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함</li> <li>• 국내외 학술·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미래 수요 기반의 장서 예측 모델 도입을 제안함</li> <li>• 희귀 장서 확보를 위해 사전 기증 협약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li> <li>• 지역 특화자료 수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li> </ul>
2. 디지털자원 확대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웹아카이빙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li> <li>•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li> <li>• 디지털자료의 장기적인 관리 및 보존 정책을 전략과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li> <li>• 디지털자료의 수증시스템 사용성 향상 및 수증자에게 자료 활용 통계 등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li> <li>• 메타버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신매체 중심의 자료 수집전략 수립이 중요함</li> <li>• 검색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li> <li>• 디지털 자원의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인터페이스 도입이 필요함</li> </ul>

추진목표	의견
3. 국내·외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대표도서관과 문화유산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 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본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함</li> <li>• 국가기록원, 국회전자도서관,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 간의 부처를 초월한 협력과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li> <li>• 국내외 학술기관과 공동 학술 연구를 통해 자료를 발굴·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li> <li>• 출판 및 유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때 출판 분야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해외 주요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희귀자료 상호대출 및 이용 협약 체결이 필요함</li> <li>• 주요 국가도서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관련 자료 확보를 추진해야 함</li> </ul>
4.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의 신기술 및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정기적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li> <li>• 장서 디지털화 및 디지털 자원의 보존·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제공이 필요하며, 파일 포맷 변환 및 클라우드 백업 등 기술적 역량 제고가 필요함</li> <li>• 사서의 직급별 특성에 맞춘 장서개발 교육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li> <li>•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조직 정비, 직급 상향,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등 인적 자원 관리 차원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li> <li>• 국제적 인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과 해외 컨퍼런스 참여 확대가 필요함</li> </ul>
5.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국가장서 수집 관련 조항의 개선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됨</li> <li>• 납본보상체계 강화 및 비정형 연구성과물, 전자출판물 납본의 법적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중요함</li> <li>• 납본자료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비매품 저서 납본 시 인쇄비 등의 비용 보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li> <li>• 공공 및 민간 기증 장서의 절차 간소화 및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함</li> <li>•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의 디지털화 우선순위를 법제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li> <li>• 공공대출보상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음</li> </ul>
6. 대중의 적극적 참여와 기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대학 협력을 통해 기부 문화 및 기증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기증문화의 확산과 홍보가 중요함</li> <li>•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유한 고문헌 수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홍보하여 기증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li> <li>•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기증자료 활용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요함</li> <li>• 기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증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플랫폼화가 필요하며, 기부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현실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li> </ul>
7. 기술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및 디지털자료 보안 강화와 자료 이동 및 보관 상태 추적을 위한 스마트 센서 기술 도입을 고려해야 함</li> <li>•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료 추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의 장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li> <li>• 국가장서 보존전략을 기술 인프라 부문의 상위 전략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적 지원을 추진해야 함</li> </ul>
8. 예산 확보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기관 내외부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됨</li> <li>•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서 개발 후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li> <li>• 국제적인 펀딩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희귀자료 발굴 및 구입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함</li> <li>• 전략과제 및 로드맵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행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li> </ul>

추진목표	의견
9. 성과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체계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함</li> <li>• 수집력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 성과지표(KPI)의 개발 및 명확한 목표 설정이 요구됨</li> <li>•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수집 및 보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도모해야 함</li> <li>•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피드백 수렴이 필수적임</li> <li>• 해외의 우수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장서 전략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li> </ul>
1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형 자료와 온라인 자료의 수집정책을 물리적·논리적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정책으로 운영해야 함</li> <li>• 수집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생산량의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li> </ul>

### 3.2.2 경영·경제·행정학 전문가 자문

경영·경제·행정학 전문가 자문은 3명의 외부 자문위원과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문회의 개최 전에 각 전문가에게 문헌 연구, 국가장서 현황 분석,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계획(안)과 자문의견서 양식을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자문회의는 전략계획(안)의 각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내용을 정리한 뒤, 3명의 전문가에게 최종 서면 자문의견서를 이메일로 다시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항목별 자문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첫째,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하여 국가장서의 체계적 수집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과) 간의 통합 또는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이나 정기회의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중복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증가한 업무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충원 및 공무원의 적정한 인력 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장서 수집과 관련된 조직, 예

산, 인력 등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맥락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및 분석해야 한다.

둘째, 예산 측면에서는 디지털 및 온라인 자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각 자료유형별 예산 비율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 및 디지털자료의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자료 수집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개정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와 디지털자료(digital-born)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자료는 물리적 공간 확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자료 특성에 따른 수집, 변환, 보존, 위기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내외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분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간 협력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존 협의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기록원 및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표 15〉 경영·경제·행정학 전문가 자문 내용

추진목표		의견
1.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서 수집 및 보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명확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li> <li>장서 수집과 보존의 업무 연결성을 강화하여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계해야 함</li> <li>수집부서와 보존부서 인력을 공동 워킹그룹으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전략을 수립해야 함</li> <li>디지털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해 IT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하며, 업무량이 집중된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함</li> <li>조직, 예산, 인력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 및 맥락적 요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전략의 타당성이 확보됨</li> <li>본관과 분관 간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업무 최소화가 필요함</li> </ul>
2.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자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자료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실물장서와 디지털장서의 예산 비율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해야 함</li> <li>예산의 투입 대비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li> </ul>
3.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 전략 목표	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물장서와 온라인 정보의 수집 우선순위 기준 설정이 가장 중요함</li> <li>정책의 정기적인 점검 및 개정을 매년 또는 수년 단위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함</li> </ul>
	디지털자원 확대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물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과 원본이 디지털 형식인 자료의 수집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 특성에 맞는 장기적 조직 확충 전략 마련이 필요함</li> </ul>
	국내·외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관과 분관 간 유기적인 내부 협력체계 구축 필요함</li> <li>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조직 간 협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정보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함</li> <li>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li> <li>국제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자료 상호 대차 및 협력체계 강화 필요함</li> </ul>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자료 관리, 보존기술, 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정기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li> <li>해외 국립도서관 및 디지털자료 보존 기관과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적 자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함</li> <li>자료수집량,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li> </ul>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중앙도서관의 근본적 역할과 함께 납본제도 및 저작권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집된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li> </ul>
	대중의 적극 참여와 기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장서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및 접근 지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 참여와 기부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li> </ul>
	기술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디지털 자료 발굴과 이용 통계 평가를 시행해야 함</li> <li>국가장서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 증대 및 업무성과 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함</li> </ul>
	성과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 자료의 활용률, 보존 상태 유지율, 디지털자료 접근율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li> <li>문체부 자체평가 등 기존 성과관리체계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시스템을 보완해야 함</li> <li>이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li> <li>수집 방법, 자료유형별로 세부적인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을 반영하여 국가장서 수집 전략개발 근거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li> <li>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단계적 연계 및 재구조화를 통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PLAN-DO-CHECK-ACTION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환류해야 함</li> <li>과제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집중도와 시기 조정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li> </ul>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기관과의 디지털자료 상호 대차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예산, 인력 등의 운영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외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서 수집 업무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여섯째, 법적·제도적 기반 및 대중의 참여 확대와 기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을 재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대중의 국가장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기부 요청이 가능하다.

일곱째, 기술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온라인 및 디지털자료 발굴과 이용 통계 분석 및 평가에서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중의 국가장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성과관리 체계를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평가 체계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수렴하여 성과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제안한 기초 통계 데이터 구축을 선행하여 상세한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타 사항으로는 국가장서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의 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반영한 전략개발의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로드맵의 단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 4.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 중 하나는 국내외 자료의 수집력을 강화하여 이를 국가장서로 체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집적·보존할 때 지식문화의 보존과 전수가 가능해지고, 당대에는 포괄적 지식정보서비스, 후대에는 국가장서의 접근·이용을 위한 타임캡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식, 문화유산, 역사 등을 보존하는 중요한 자산인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서 수집 관련 문헌 분석, 현황 분석, 심층면담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략계획(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및 경영·경제·행정학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림 1>과 같이 수정·보완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장서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비전과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비전은 ‘국가



〈그림 1〉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과제

지식자원의 체계적 수집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통적인 자료와 디지털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식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지향을 반영한 것이다. 즉, 국가장서의 수집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학문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연구자와 대중에게 보다 폭넓고 혁신적인 국가지식자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 지식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

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 아래 국가지식자원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3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핵심과제와 20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별 핵심 및 추진과제는 주요 문헌 분석, 담당자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수집 및 확충을 위해 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장서개발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정기적 개정을 제안하며, 국내외 고문헌의 적극적 발굴과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확대, 국가 대표 컬렉션 개발

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는 「도서관법」,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2024-2028」에서 강조한 국가지식자원의 전송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담당자 심층면담에서는 고유 컬렉션 구축 필요성, 수집 대상의 선정과 우선순위 기준 명확화,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문가 자문에서는 적극적 수집활동을 위해 장서개발정책 상세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매체 자료의 수집전략, 우선순위 설정 및 장기 보존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디지털 자원의 확대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웹 아카이빙 대상 확대 및 코리안 메모리 구축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2024-2028」 및 「도서관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디지털자료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자원의 개방과 공유, 협력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담당자 심층면담에서도 장기적으로 디지털자료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자문 또한 웹 아카이빙 분석 및 평가체계의 구축, 디지털자료에 대한 장기적 관리 및 보존 정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셋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납본제도 및 저작권 관련 법률 개정과 납본제도 전문위원회 구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담당자 면담에서는 납본 방식의 개선, 납본 보상금, 제외 자료 지침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납본 및 저작권 관련 제

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장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한 가용자원의 최적화 측면에서 국가장서개발전략팀의 구성, 인적 자원 전문성 강화, 수집 예산의 확충 및 전략적 재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장서 수집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담당자 심층면담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특히 온라인 자료 관련 예산의 전략적 확대와 디지털화 비용의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기초통계 데이터 구축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가장서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담당자 면담에서는 자료의 급속한 증가 속도에 비해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효율성 저하와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국가문헌보존관의 신속한 건립과 온라인 및 디지털자료 수집에 AI 등 신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자원 배분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자문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성과평가 지표 구성이 필요하며, 문체부 자체평가 등 기존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이를 위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곱째, 발전적 연대 및 협력의 정책목표 아



래 국내외 연대 및 협력 확대가 강조되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아카이빙 지원, 국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집 확대, 해외 기관과의 국제교류 강화, 민간 참여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도서관법」 및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와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이미 명시하고 있다. 담당자 심층면담에서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제적 자료 수집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장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우수 사례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로드맵(2025-29)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도별 실천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행관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

정책 목표	핵심 및 추진과제	2025년 기반 구축기	2026년 도약 준비기	2027년 본격 추진기	2028년 심화 발전기	2029년 성과 확산기
전략적 수집과 확충	<b>1 국가장서 수집정책 강화</b> ①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정기적 개정 ② 국내외 고문헌 적극 발굴 ③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확대 ④ 국가 대표 컬렉션 개발 및 수집	• 국가장서 수집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설정 및 세부 수집 지침 수립	• 분야별, 주제별 수집 목표 설정 및 관련 위원회 검토	• 각 분야의 주요 자료에 대한 집중적 수집 추진 및 목표 달성 여부 평가		
	<b>2 디지털 자원 확대 및 관리 강화</b> ⑤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확대 ⑥ 웹 아카이빙 대상 확대 ⑦ 코리안 메모리 구축 강화	• 주요 희귀본 및 역사적 자료의 디지털화 추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자원 국가장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보존 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b>3 법·제도 정비</b> ⑧ 납본 및 저작권 관련 법률 개정 추진 ⑨ 납본제도 전문위원회 구성	• 납본과 저작권 관련 법률 개선을 위한 법률 검토 및 제언	• 법적 의무 수집 제도의 강화 및 운영 체계 개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료 공개 및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b>4 가용자원의 최적화</b> ⑩ 국가장서개발 전략팀 신설 ⑪ 인적 자원 전문성 강화 ⑫ 국가장서 수집 예산 확충과 재조정	• 인력 재배치 • 장서 관리 및 보존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 확보 전략 수립	• 국제 학술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표준과 기술 습득		• 수집 목표에 따른 예산 사용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 • 연구 지원을 통해 새로운 장서 수집 방법론 및 보존 기술 개발	
	<b>5 미래지향적 인프라 개선</b> ⑬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 ⑭ (가칭)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및 운영	• 수집 및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존 시설 및 공간 확장	• AI 수집 추천 시스템 도입 및 적용 • 보안 시스템의 강화 • 지속가능한 보존 공간 마련		• 국가장서의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확대, 통합 시스템의 고도화	
	<b>6 성과 평가체계의 고도화</b> ⑮ 성과평가체계 구축 ⑯ 핵심성과지표 개발	• 수집 업무별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 KPI의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 KPI의 확정 및 적용, 성과 분석	• 5년간 전략 성과 종합 평가 • 장기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 개발
발전적 연대 및 협력	<b>7 국내외 연대 및 협력 확대</b> ⑰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아카이빙 지원 ⑱ 국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집 확대 ⑲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⑳ 민간의 참여 유도 및 홍보 강화	• 지역·향토자료 수집에 대한 지침 및 규정 마련 • 지역 도서관, 다양한 학회 협회와의 협력 강화 및 공동수집 프로젝트 추진 • 주요 국립도서관 및 아카이브와의 협력 관계 강화	• 지역자료수집협의회 기반 지역·향토자료 수집 강화 • 국제 자료 교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아카이빙 지원 확대 • 국가장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자료 확보 • 기증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 검토 및 도입		

<그림 2>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로드맵(2025-29)

다. 먼저 추진체계 기반으로 전담조직인 국가장서개발 전략팀을 구성해야 하고, 납본제도 관련 정책 논의와 검토를 위해 납본제도전문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서개발 위원회는 국가장서개발 전략팀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및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국가장서의 수집 업무가 진행되면 매년 연차별 성과평가, 2027년이나 2028년에 중간평가 및 보완, 2029년 최종성과 평가가 이루어져 각각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장서와 관련된 주요 문헌 분석, 지난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 현황 조사, 장서 수집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가장서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장서 수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장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조직과 인적자원을 재구성하여 전략팀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급변하는 출판 환경 및 기술적 발전을 반영한 국가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총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가장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컬렉션을 구성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며, 한국 컬렉션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은 자국의 역사,

문화 및 학술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대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학술적 연구, 교육 및 지식문화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컬렉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K-POP, 드라마 등 K-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글, 한식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글로벌 관심과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K-컬렉션'을 중심으로 시대별, 지역별 우수 콘텐츠(역사, 인물, 음식, 명소, 축제, 전통문화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된 국가장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료유형별, 수집방법별, 주제별, 시기별로 신속한 분석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수집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한국의 지식문화 변천사 분석 및 대표 컬렉션 선정의 객관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장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과 대표 컬렉션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3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장서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출판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장서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2025년 개관 8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장서의 현황과 수집 프로세스를 철저히 진단하고, 국가 대표 컬렉션을 육성하기 위한 수집 전략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만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8). 장서개발지침.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21). 장서개발지침(개정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23a). 장서개발지침(제3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23b).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비전 2024~2028. 서울.
- 김영식, 정유경, 이영미 (2023).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노영희, 손애경, 이경선, 장인호, 정영미, 차현주 (2023). 온라인 자료 수집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24~2028). 서울.
- 도서관법 시행령. 법률 제34533호.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손애경, 이은호, 이건웅 (2021). 온라인 자료 납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제1권(2021.8.), 1-34.
- 유춘동, 이운석, 이해은, 김낙현, 김현주, 엄태웅, 유형동 (2022). 근대 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윤희윤,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 윤희윤, 장덕현, 김홍렬, 손지현, 김신영, 오선경 (2012).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영학, 오명진, 조민지, 곽승진, 노영희 (2022).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중장기 수집 정책 수립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 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http://doi.org/10.4275/KSLIS.2009.43.4.193>

###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Act No. 34533.

Jang, Hye-ran, Hong, Hyunjin, Noh, Younghee, & Oh, Eui-Kyung (2009). Developing a basic framework for the Korean national collection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93-215. <http://doi.org/10.4275/KSLIS.2009.43.4.193>

- Kim, Young-sik, Jeong, Yu-Kyeong, & Lee, Young-mi (2023).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upplement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Library Material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Lee, Young-hak, Oh, Myeong-jin, Cho, Min-ji, Kwak, Seung-jin, & Noh, Younghee (2022).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Collection Policy for Overseas Korean-Related Material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Library Act. Act No. 19592.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Seoul.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Seoul.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2nd ed.). Seoul.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a).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3rd ed.). Seoul.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b). Future Vi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4-2028. Seoul.
- Noh, Younghee, Son, Aekyoung, Lee, Kyung-Sun, Jang, Inho, Jeong, Youngmi, & Cha, Hyun-ju (2023).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Online Resource Collec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Son, Aekyoung, Lee, Eun-ho, & Lee, Geon-woong (2021).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egal deposit for online materials.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Issue Paper, 1, 1-34.
- Yoo, Choon-Dong, Lee, Yun-seok, Lee, Hye-Eun, Kim, Nack-Hyeon, Kim, Hyun-Ju, Eom, Tae-ung, & Ryu, Hyung-dong (2022).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Modern Ancient Document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on, Hee-yoon & Jang, Durk-hyun (2010).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07-122.
- Yoon, Hee-yoon, Jang, Durk-hyun, Kim, Hong-ryeol, Son, Ji-hyun, Kim, Sinyoung, & Oh, Seonkyung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Publication Status and Legal Deposit Improvements for Comprehensive National Literature Collec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